

제목: "더욱 많이 힘쓰라"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1절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바울을 통하여 격려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힘을 쓰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열심을 내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야 합니까?

- 1) _____에 더욱 많이 힘을 쓰라고 하십니다.
- 2) 가족 _____에 더욱 많이 힘을 쓰라고 하십니다.
- 3) _____ 사랑에 더욱 많이 힘을 쓰라고 하십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들을 중심으로 개척 된 교회 (뉴저지 지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선교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너희 묵은 땅은 지금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호세아 10장 12절)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 and seek the Lord" (Hosea 10: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 도 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 양 다 같 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1절 설 교 자
Scripture Reading Thessalonians 4: 1-11 신약 331 페이지 Presider
- 말 씬 "더욱 많이 힘쓰라" 김성민 목사
Message Do this more and more Rev. Kim
- 특별찬양 김성정 전도사
Special Praise Pastor Faith Kim
- 헌금/기도 다 같 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 도 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 같 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 도 설 교 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여기도 행복합니까?)

하와이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아간다. 여행객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보통 머무는 곳은 와이키키(Waikiki)라는 유명한 바닷가 근처다. 와이키키에 여장을 풀고 그곳에서 먹고 즐기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와이키키는 유명하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와이키키는 그리 사랑받는 곳은 아니란다. 사업을 하는 장소로는 좋겠지만 쉬고 즐기기에 위하여 와이키키에 가지는 않는다고 한다. 차들이 너무 많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답답하며, 바다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풀장 같고 퍼다 놓은 모래밭이라 자연미가 없는 소음과 매연 그리고 빌딩마다 뿜어 대는 에어컨 소리에 반가운 곳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하와이 주민님들이 가는 곳이 있다고 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들이다. 그중에 한 장소가 내가 묵었던 호텔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해군기지 바닷가였는데 친구 목사님의 인도로 그 조용한 곳에서 15분 정도 머물렀다.

아무도 없는 바닷가다. 파도는 잔잔했다. 나무에 그늘이 있었다. 그곳에 15분은 하와이에서 있었던 4일을 모두 합친 것 보다 나에게 더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것은 바다의 파도 소리 때문이었다. 그 파도 소리는 와이키키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였다. 높고 강한 파도가 저쪽에서 벌써부터 꺾여 내가 있던 곳에 올 때에는 아주 잔잔한 파도가 되어 있었다. 그 소리가 약하지만 잔잔하고,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밀려오는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와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 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곳에 더 있고 싶었지만 다른 장소로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도 나의 마음에는 그 장소가 자리 잡고 있다.

나는 길을 인도한 목사님께 “참 좋은 곳에 살고 있으니 좋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네”라고 했다. 내가 느낀 감동과 같은 것이 없이 그곳에서 산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나 스스로를 생각해 보았다. 과연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서북미에 감동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그저 먹고 산다고 하며 숨 가쁜 장소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잔잔히 서북미에 밀려오는 아름다움의 소리는 하와이에서 느낄 수 없는 행복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곳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에는 행복하라고 주셨다. 그곳이 어디이고 어떠한 환경이라고 하여도 행복을 찾아갈 때에 그 행복의 길이 보이고 평안의 길이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라고 하셨다.

혼자서 세상을 짊어지고 가며 메마른 삶을 살지 말고, 무거운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면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 기도의 삶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번 주 기도제목

- 1) 모임 때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일 잘 감당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의 시작되도록
- 5)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김예식, 조영실)
- 6)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Covid-19을 잘 이겨내도록
- 8) 미국의 안정을 위하여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11월호)가 도착했습니다. 한권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5. 11월모임

추수 감사주일	11월 20일(주)	예배 시
추수 감사절	11월 26일(목)	
대림절 시작(Advent)	11월 29일(주)	

8. 주일예배 시 (방역)

- 1) 교회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2) 되도록 손으로 이곳저곳을 만지지 않습니다.
- 3) 서로 6 피트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합니다.
- 4) 들어오고 나갈 때에 이름과 시간을 출석 종이에 적습니다.
- 5) 인사도 서로 거리를 두고 합니다.
- 6) 화장실은 예배당 옆에 있는 두 개의 화장실만을 사용합니다.
- 7) 찬양/찬송을 소리 내어 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찬양합니다.
- 8) 음식을 나누는 친교는 없으나 예배 전과 후에 대화는 가능합니다.
- 9) 하지만 예배 시 “아멘”은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9.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